

이슈브리핑 vol.335 2025년 12월

ISSUE BRIEFING



전북의 청년 니트(NEET) 현황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책임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이지선 연구위원

요약

전북 청년 니트 현황 및 전북도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청년층에서 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 특히 ‘그냥 쉬었음’이 증가하고 있음. 청년 니트 증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수시 채용 확대와 경력직 선호, 학력·전공 미스매치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지체가 확대된 결과이며, 청년 실업·빈곤·사회적 배제 등 사회적 비용을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
-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쉬었음’ 비경제활동 청년이 일정 규모로 존재함. 이에 전북 지역 내 청년 니트 규모와 유형별 특성을 통계적으로 정밀 진단하고 단절 요인과 수요를 다각도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함. 또한, 중앙 정부 정책 흐름과 연계해 청년의 노동사회 이행을 촉진하는 선제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 있음

전북 청년 니트 규모 및 특성 분석

- **(전북 청년 니트/‘쉬었음’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그냥 쉬었음’ 청년(만19~39세)은 15,283명으로, 전국 ‘쉬었음’ 청년(680,447명) 중 전북은 약 2.2%를 차지하며, 20대(7,664명)와 30대(7,619명) 규모가 거의 비슷함
- 전북 비경제활동 청년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18년 9.7%에서 2019년 16.3%로 급등한 뒤 2020~2023년 약 16~17%대가 이어졌으나, 2024년 12.8%로 하락(전년 대비 -3.9%p)하며 정체 국면이 완화되는 흐름임. 최근 전국과 달리 “규모·비중 동반 하락”이 특징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진안(34.5%)·고창(32.8%)·순창(30.4%)은 전북 평균(12.8%)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익산(4.1%)·군산(7.5%)은 크게 하회해 “지역 여건별 표적형 개입”이 필요함
- **(전북 청년 니트/‘비경제활동인구’의 유형별 특성)** 전북 청년 니트 유형은 취업준비·구직형(24,158명), 진학준비형(1,132명), 돌봄·가사형(21,806명), 비구직형(쉬었음, 15,283명), 심신장애형(2,579명), 군입대 대기형(1,267명)으로 구분. 즉 전북의 니트(비경제활동인구) 유형은 구직 준비·돌봄·쉬었음이 핵심 축을 이룸
- 연령 패턴은 뚜렷한데, 취업준비·구직형은 25~29세에서 급증(12,956명) 후 30대 진입과 함께 급감했고, 돌봄·가사형은 30대(특히 35~39세 11,072명)에서 주류로 전환됨. 비구직형(쉬었음)은 19~24세(4,199명)에서 형성된 뒤 30~34세(4,969명)까지 지속되고, 심신장애형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가 존재해 상시적 지원 수요가 확인됨
- **(청년 니트 발생의 구조적 요인)** 청년 니트(특히 ‘쉬었음’)가 발생하는 주요 구조적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산업·노동시장 구조(이중구조·미스매치), 교육·훈련·고용 경로 단절, 심리적 단절, 정책 전달체계·데이터 취약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임

전북 청년 니트 특성과 유형별 맞춤 정책 접근 방안

- **(청년 니트 정책의 기본 방향)** ①청년 니트가 고착화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전 단계부터 개입하는 예방 중심적 접근과 ②‘쉬었음’ 3개월 시점의 적극적 조기 개입 및 ③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무탐색에서 채용까지 잇는 경로 기반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④고용·복지·정신건강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개인별 과정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함
- **(청년 니트 유형별 맞춤 정책 방향)** 구직 여부와 사유에 따라 실직형, 구직단념형, 준비형, 가사·돌봄형, 건강장애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유형별 장애 요인을 겨냥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전북형 청년 니트 정책의 과제)** 기존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필요. 전주권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삼되, 인프라가 부족한 군 지역에는 '이동형 커리어버스'를 운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장기 니트 고착을 막는 조기경보 및 과정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전북 청년 니트 현황 및 전북도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최근 청년층에서 부각 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직업 훈련이나 일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냥 쉬었음’이란 청년 니트의 증가임. 청년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정규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함
 - 니트(NEET)는 교육·고용·직업 훈련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단절까지 포괄하는 대표적인 취약 지표로 평가됨
- 한국의 청년 니트 증가 비중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최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채용 추세의 변화(수시 채용 확대, 경력직 선호), 학력·전공 미스매치 등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청년 니트 문제는 노동시장의 단순 고용 문제를 넘어 청년 실업을 악화,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로 이어지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또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누적시킴. 특히 2022년 이후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흐름 속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비구직/휴식형 청년 니트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인구감소와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 중 ‘쉬었음’의 청년 니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도내 산업구조의 고착화, 공공 일자리 중심의 단기 대체형 고용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전북 청년들의 ‘활력 상실’과 ‘지역 정착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전북의 청년 니트 문제는 단순한 고용 부진과 실업 문제를 넘어, 인구감소, 지역소멸,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악순환 초래 등 다층적 문제와 직결되는 구조적 지역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청년층의 지역사회 이탈과 사회적 고립은 지역경제 활력 약화와 미래세대 기반 축소로 직결됨
-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의 청년 니트 현황을 통계적으로 정밀 진단하고,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형별·특성별 현황과 수요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청년 니트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 역시 지역 내 청년 니트 규모와 유형별 특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 전북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지역 내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함. 아울러, 니트 상태의 장기화는 청년 개인의 자존감 저하와 정신건강 문제(우울, 고립 등)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음



전북 청년 니트 규모 및 특성 분석

(1) 청년 니트('쉬었음')의 통계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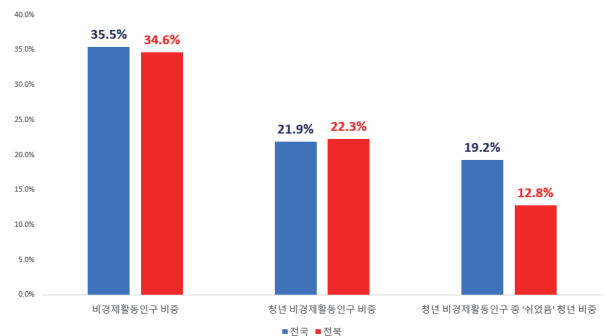
-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서, 구직활동도,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청년이 늘고 있음. '24년 상반기 기준 '그냥 쉬었음 전북 청년'은 15,283명으로 나타남
- 청년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즉 15살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사기준일 직전 한 주간 가사·육아·학업·질병 등의 특정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말함. '그냥 쉬고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는 구분됨

- 전국 청년인구 중 '쉬었음' 청년은 680,447명이고, 이 중 전북의 '쉬었음' 청년은 약 2.2%(15,283명)의 비중을 차지함
- 연령대별로, 전국 20대(19~29세) '쉬었음'은 385,042명(56.6%), 30대(30~39세) '쉬었음'은 295,404명(43.4%)로 20대 청년 비중이 약 13.2%p(89,638명) 더 많음
- 전북의 경우, 20대(19~29세) '쉬었음'은 7,664명(50.1%), 30대는 7,619명(49.9%)로 20대와 30대 쉬었음 청년 규모는 비슷함

[표 1] 전국과 전북 청년의 경제 상태 현황(2024)

구분		전국	전북
전체 청년층 인구(19~39세)		13,705,129	405,418
청년 경제활동인구		9,608,403	260,977
청년 취업자		9,178,998	243,388
청년 실업자		429,405	17,589
청년비경제활동인구		3,538,857	119,487
쉬었음	20대(19~29세)	385,042	7,664
	30대(30~39세)	295,404	7,619
	합 계	680,447	15,283
취업준비		472,372	24,158
재학·진학준비		1,464,396	54,305
육아·가사		799,923	21,806
기타		121,719	3,935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16,151,000	536,000
청년 비경제활동인구(19~39세)		3,538,857	119,487
쉬었음	청년 인구	680,447	15,283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전국 및 시도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주1)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등이 포함됨.

주2) 청년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전체 비경제활동인구) × 100

주3) 본 통계는 시도단위 가중값이 적용된 추정치(소수점 포함)를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총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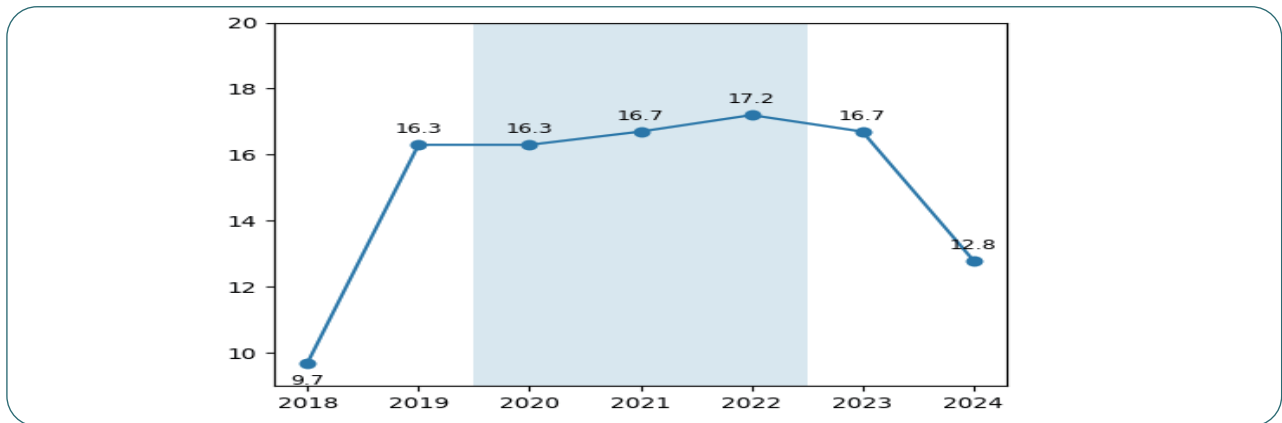
전북의 청년 니트(NEET) 현황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해 약 5년간('19년~'23년) 16~17%대의 수준에서 정체되었다가 최근 '24년에 하락세로 전환됨
 - '18년 9.7%에서 '19년 16.3%로 급등한 후, '20년 16.3%, '21년에서 '23년까지 16~17%대를 지속 유지
 - '24년에 12.8%로 하락하면서 전년(16.7%) 대비 3.9%p 감소함, '19년 이후 지속되던 '쉬었음' 비중의 정체 국면이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됨

- 연도별에 따른 연령대별 '쉬었음' 비중 추이를 보면, 중장년층(40~59세)이 연령대와 전 기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했고, 고령층(60세 이상)은 '23년 이후 급격히 상승함. 반면 청년층(19~39세)은 '19~'23년 16~17%대 정체 후 '24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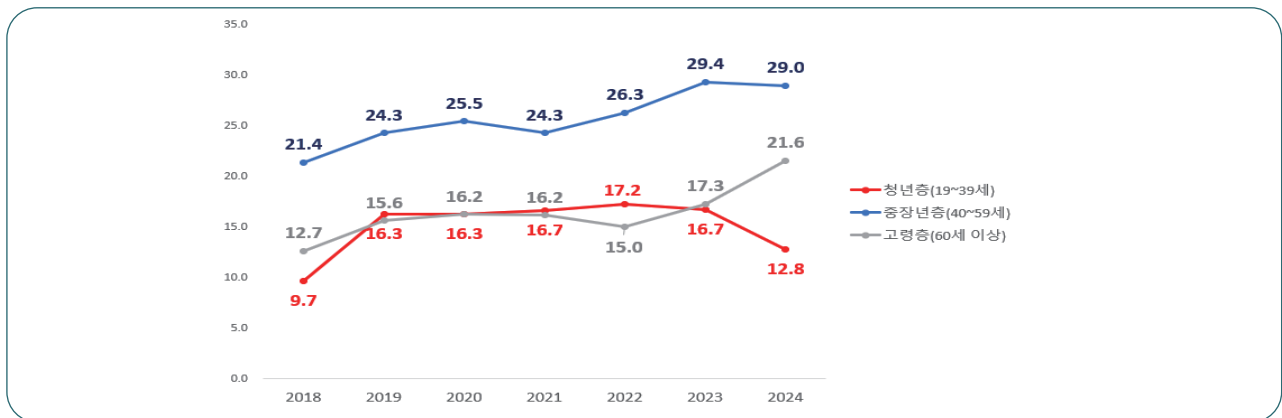
- 전북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최근 들어 중장년·고령층에서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반면, 청년층은 '24년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연령대별 양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 전북 연도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18 ~ '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단위 자료 활용」, 연구진 작성, 주1) 파란 음영은 팬데믹 기간을 나타냄

[그림 2] 전북 연도별 및 연령층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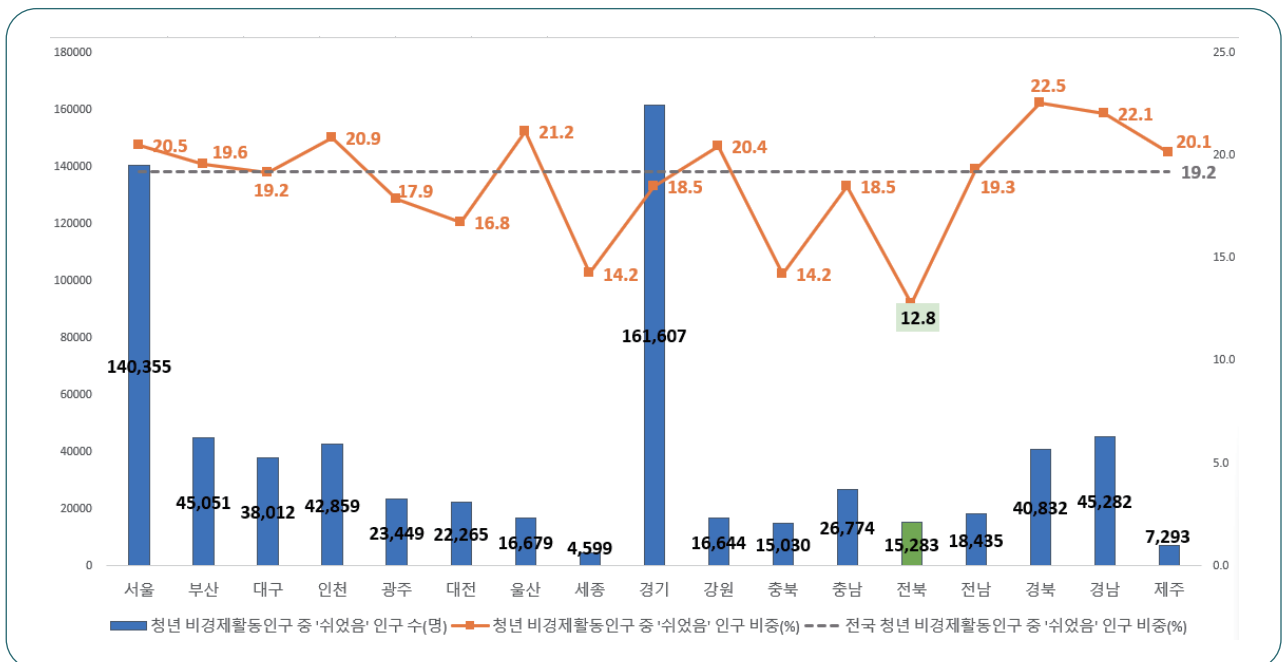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단위 자료 활용」, 연구진 작성

○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쉬었음' 청년 현황을 보면, 절대 규모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쉬었음' 청년 비중(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의 비중)은 시도별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전국 '쉬었음' 청년 680,447명 중 161,607명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다음으로 서울 140,355명, 경남 45,282명, 부산 45,051명, 인천 42,859명, 경북 40,832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세종 4,599명, 제주 7,293명 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편임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의 경우, 전국평균(19.2%)을 상회하는 지역은 경북 22.5%, 경남 22.1%, 울산 21.2%, 인천 20.9%, 서울 20.5% 등으로, 일부 영남권 및 대도시에서 '쉬었음' 청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쉬었음' 청년은 15,283명으로 충북(15,030명), 강원(16,644명) 등과 유사한 규모이나, '쉬었음' 비중은 12.8%로 전국평균 보다 6.4%p 낮고, 충북보다 1.4%p, 강원보다 7.6%p 낮음. 즉, 전북의 '쉬었음' 청년 비중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1.5만명 규모의 정책 대상 집단이 존재하므로 지역 여건에 맞춘 선제적 관리·지원이 필요함

[그림 3] 전국 시도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규모 및 비중(2024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주) 본 통계는 시도단위 가중값이 적용된 추정치(소수점 포함)를 반올림한 값으로, 시도별 수치 합계는 전체 총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전북의 청년 니트(NEET) 현황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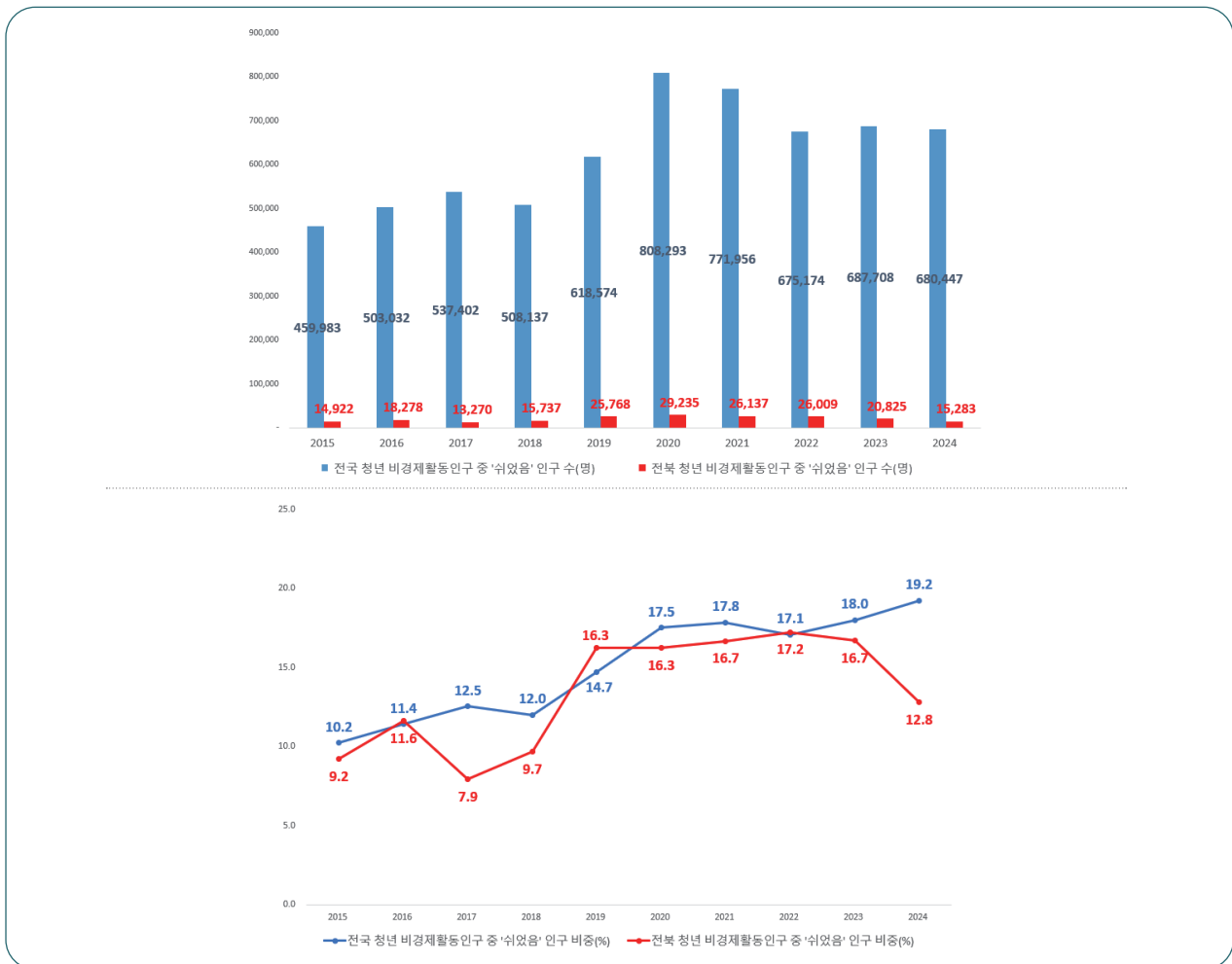
○ 전국 및 전북의 청년 니트 규모와 비중을 보면, '15~'19년까지 증가 추세, '20년 급증, '21년부터 감소·조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동일하나, '23년과 '24년인 최근에는 전국은 보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은 '20년 이후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60만 명대 후반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비경제활동 청년 중 '쉬었음' 비중은 '15년 10.2%에서 '24년 19.2%로 지속 상승세를 나타냄

- 전북은 '20년 청년 니트 규모의 정점(29,235명)을 찍은 후, '24년 15,283명으로 감소(-47.7%)했으며, '쉬었음' 비중도 '20~23년 16~17%대에서 '24년 12.8%로 하락함

○ 즉, 전국 '쉬었음' 청년 규모는 정점 대비 소폭씩 감소하나 그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는 반면, 전북은 최근 '쉬었음' 청년이 절대 규모로도 줄고, 비경제활동 청년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그림 4] 연도별 전국 및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규모와 비중(2015~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전국 및 시도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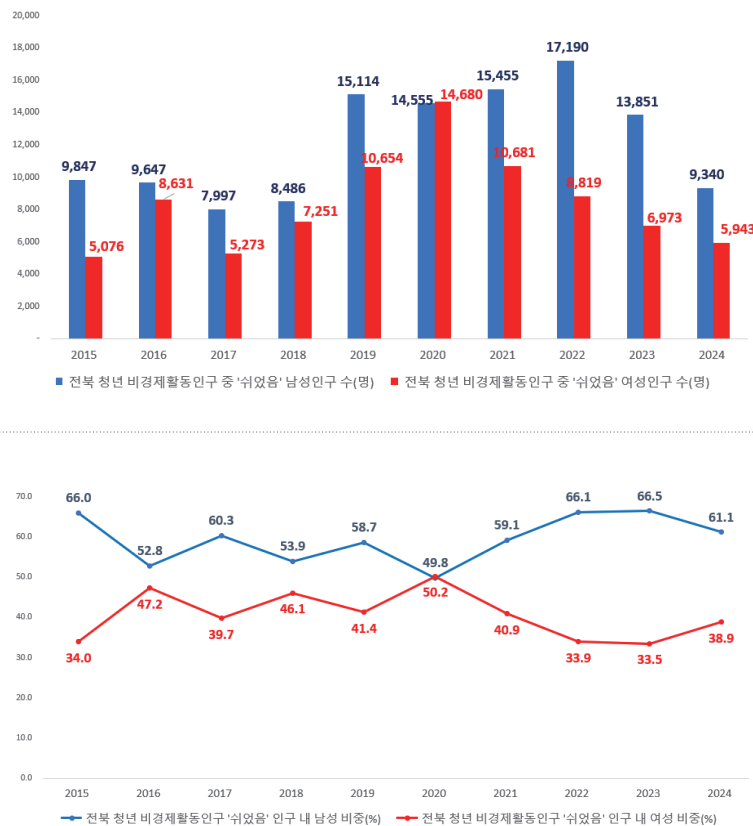
○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전북의 '쉬었음' 청년인구 규모와 그 비중을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규모와 비중이 큰 구조가 지속되며, 특히 '22년 남성 증가가 두드러진 이후 '23~'24년에 남녀 모두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남

- '쉬었음' 청년 남성은 '15년 9,847명에서 '17년 7,997명까지 감소하였다가, '19년에 급증함. '22년 17,19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3년 13,851명, '24년 9,340명으로 감소함. 남성 비중은 '15년 66%에서 '20년 49.8%로 감소했다가, '22년과 '23년 각각 66.1%, 66.5%로 다시 확대되었고 '24년 61.1%로 일부 하락함

- 여성은 '15년 5,076명에서 '20년 14,680명으로 증가해 고점을 형성한 후 '21년 10,681명, '22년 8,819명, '23년 6,973명, '24년 5,943명으로 감소세를 보임. 여성 비중은 15년 34.0%에서 시작해 '20년 50.2%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2년 33.9%, '23년 33.5%로 낮아졌다가 '24년 38.9%로 소폭 상승

○ 성별 격차(남성-여성)는 '15년 4,771명에서 '22년 8,371명까지 확대된 후, '24년 3,397명으로 축소됨. 최근에서는 남성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22년 대비 '24년 남성 -7,850명, 여성 -2,876명)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임

[그림 5] 연도별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성별 규모와 비중(2015~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전북의 청년 니트(NEET) 현황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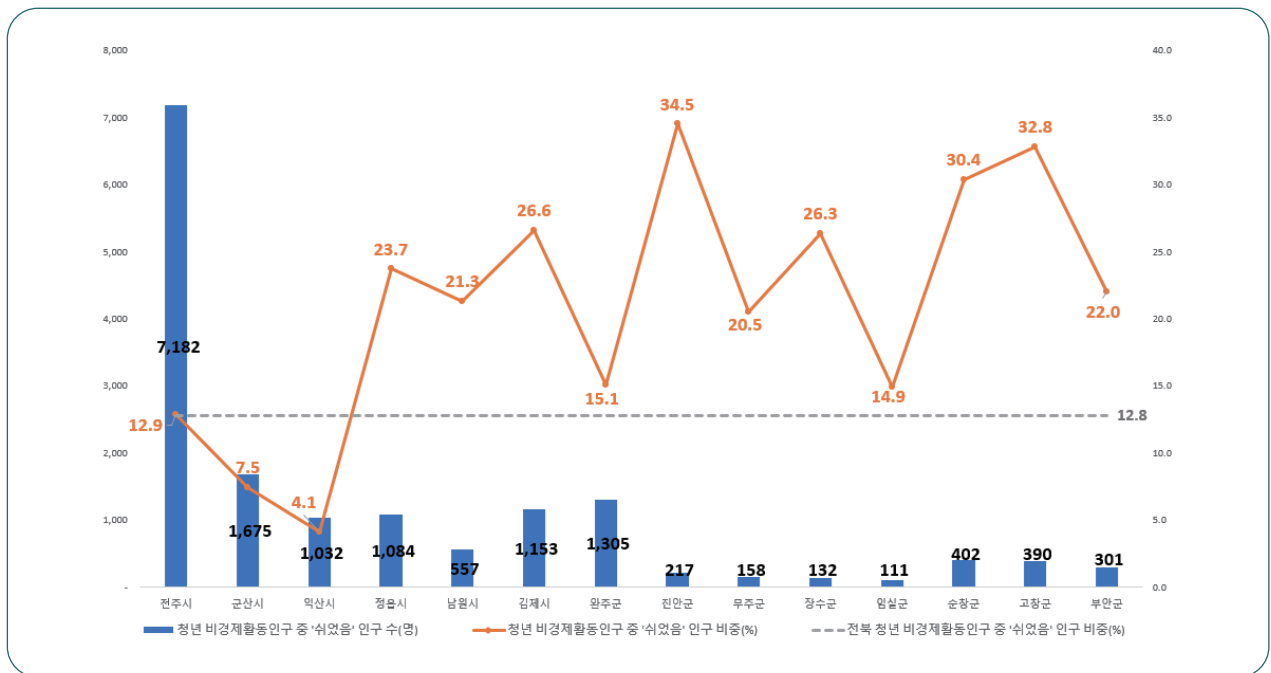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북 14개 시군별 청년 ‘쉬었음’은 규모가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쉬었음’ 비중은 일부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시군 간 격차가 확인됨

- 시군별 ‘쉬었음’ 청년 규모의 경우, 전주시가 7,18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군산(1,675명), 완주(1,305명), 김제(1,153명), 정읍(1,084명), 익산(1,032명) 등 그 뒤를 이음. 반면 진안(217명), 무주(158명), 장수(132명), 임실(111명) 등은 절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 비중의 경우, 전북평균 12.8%를 기준으로 편차가 큼. 진안(34.5%), 고창(32.8%), 순창(30.4%) 등은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익산(4.1%), 군산(7.5%) 등은 평균을 크게 하회함

○ 도시권(전주 등)은 ‘쉬었음’ 청년 규모가 큰 반면, 그 비중은 평균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군 지역(진안·고창·순창 등)은 ‘쉬었음’ 청년 규모는 작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비중이 매우 높음

[그림 6] 전북 시군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규모 및 비중(2024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주1) 시도단위(시도가중값)와 시군단위(시군구가중값)는 가중치 산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시군 추정치 합이 시도단위 전북 추정치와 불일치함

○ 전북 전체 ‘쉬었음’ 청년은 ’15년 9.2%에서 ’22년 17.2%까지 상승했다가 ’24년 12.8%로 다소 완화 되었으나 10년 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니트 청년 문제가 지역 내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시군별로, 고창군(’23년 40.0%), 남원시(’19년 41.6%), 부안군(’22년 37.5%) 등 일부 군 지역은 특정 시점에 30~40%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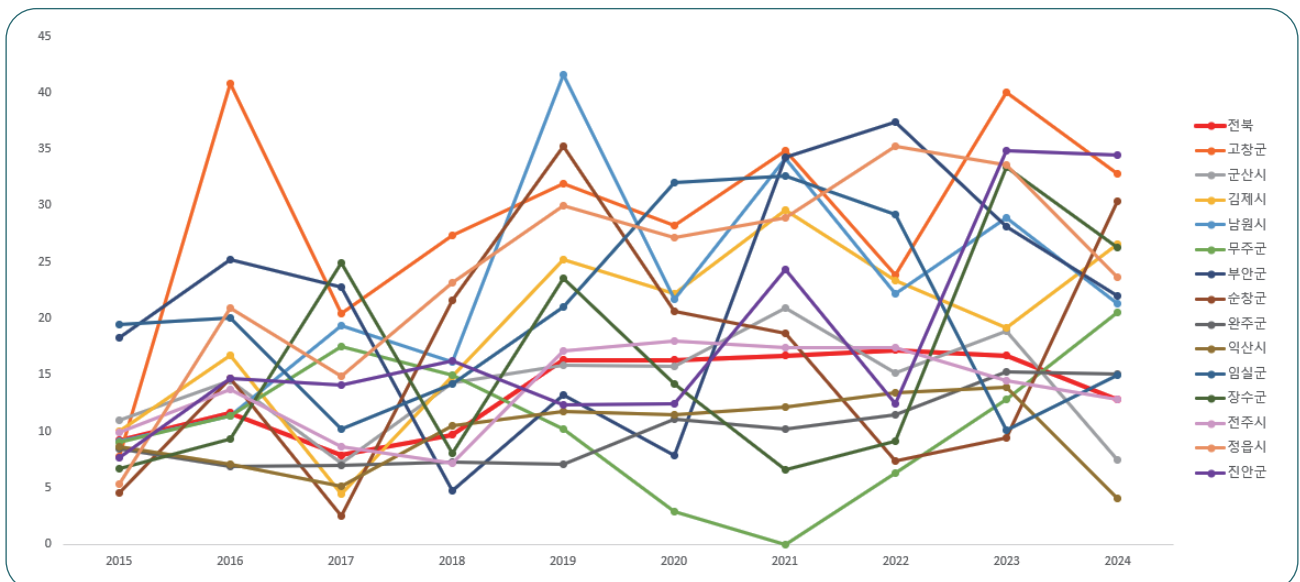
이는 표본 수 제한에 따른 통계적 변동성일 수 있으나, 동시에 군 지역 청년들이 겪는 고용 기회 부족과 활력 저하가 심각함을 나타냄

- 전북 내 청년 니트 문제가 단순히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취약한 군 단위 지역에서 더욱 가파르고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전북 14개 시군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 현황(2024)

연도	전북 평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015	9.2	9.9	11.0	8.7	5.4	9.1	10.0	8.4	7.7	9.1	6.7	19.4	4.6	7.8	18.3
2016	11.6	13.7	14.5	7.1	20.9	11.3	16.8	6.9	14.7	11.4	9.3	20.1	14.7	40.8	25.2
2017	7.9	8.6	7.1	5.1	14.9	19.3	4.4	7.0	14.1	17.5	24.9	10.2	2.5	20.5	22.7
2018	9.7	7.2	14.3	10.5	23.2	16.2	14.8	7.3	16.2	15.0	8.1	14.2	21.6	27.4	4.8
2019	16.3	17.1	15.8	11.8	30.0	41.6	25.3	7.1	12.4	10.2	23.5	21.0	35.3	32.0	13.2
2020	16.3	18.0	15.7	11.5	27.2	21.7	22.2	11.1	12.4	2.9	14.2	32.1	20.7	28.2	7.9
2021	16.7	17.4	20.9	12.2	28.9	34.2	29.6	10.2	24.3	0.0	6.6	32.6	18.7	34.8	34.3
2022	17.2	17.4	15.2	13.4	35.2	22.2	23.3	11.4	12.5	6.3	9.2	29.3	7.4	23.8	37.5
2023	16.7	14.5	18.9	13.9	33.6	28.9	19.1	15.2	34.8	12.9	33.4	10.1	9.5	40.0	28.1
2024	12.8	12.9	7.5	4.1	23.7	21.3	26.6	15.1	34.5	20.5	26.3	14.9	30.4	32.8	22.0

[그림 7] 연도별 전북 시군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 추이(2015~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주1) 시도단위(시도가중값)와 시군구단위(시군구가중값)는 가중치 산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시군 추정치 합이 시도단위 전북 추정치와 불일치함

주2) 군 단위 일부 지역은 비경제활동 청년 규모가 작아 표본수가 제한적이므로, '쉬었음' 비중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거나 0%·고비중 등 극단값이 나타날 수 있음. 단년도 수치 해석 시 유의 필요

(2) 청년 니트(비경제활동인구)의 유형별 특성 분석

- 청년 니트는 성별, 연령대별 등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다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 니트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내 활동상태정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①취업준비·구직형(실직 후 취업준비와 구직을 준비하는 유형), ②진학 준비형(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③돌봄가사형(육아, 가사), ④비구직형(쉬었음), ⑤심신장애형, ⑥군입대 대기로 구분함

- 전국 대비 전북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4년 규모는 전국과 전북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를 주도한 유형과 증감 양상은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남
 - 전국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년 대비 71만 3,925명이 감소하였고, 전북도는 2만 9,186명이 감소함
 - 전북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유형별 살펴보면, '15년 대비 '돌봄가사형(-28,843명)' 감소가 전체 감소를 주도한 반면, '취업준비·구직형'은 2,510명, 비구직형(쉬었음)은 361명 증가함

[표 3] 전국 및 전북의 청년 니트(비경제활동인구) 유형별 규모 현황(2015, 2024)

(단위: 명, %)

구분		합계						
			취업준비·구직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비구직형 '쉬었음'	심신장애형	군입대 대기
전 국	2015	2,858,259	467,194	97,365	1,687,234	459,983	60,351	86,132
	2024	2,144,334	472,372 (22.0%)	81,619 (3.8%)	799,923 (37.3%)	680,447 (31.7%)	61,703 (2.9%)	48,270 (2.2%)
	증감 ('24-'15)	-713,925	5,178	-15,746	-887,311	220,464	1,352	-37,862
전 북	2015	95,411	21,648	1,470	50,649	14,922	3,176	3,546
	2024	66,225	24,158 (36.5%)	1,132 (1.7%)	21,806 (32.9%)	15,283 (23.1%)	2,579 (3.9%)	1,267 (1.9%)
	증감 ('24-'15)	-29,186	2,510	-338	-28,843	361	-597	-2,279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시도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주1) 시도단위(시도가중값)와 시군단위(시군가중값)는 가중치 산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시군 추정치 합이 시도단위 전북 추정치와 불일치함
주2) '-' 표시는 (1) 해당 값이 미집계/결측인 경우, (2) 증감의 경우 비교연도 중 하나의 값이 결측으로 인해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주3) 일부 지역 단위는 표본수 제한으로 추정치 변동성으로 인해 단년도 수치 해석 시 유의 필요

○ 2024년 기준 전북 청년 니트를 연령대별과 유형별로 조합하여 살펴보면, 20대(19~29세)는 '취업준비·구직형', 30대(30~39세)는 '돌봄가사형'이 상대적으로 많음

- '취업준비·구직형'의 경우, 19~24세 6,834명에서 25~29세 12,956명으로 약 1.9배 급증한 후, 30대 진입과 함께 급감하는 구조를 보임. 이는 구직 활동이 20대 후반에 병목 현상을 빚고 있음을 의미함
- '돌봄가사형'의 경우, 20대까지는 비중이 낮으나 30~34세(7,293명)부터 급증하여 35~39세 (11,072명)에는 전체 니트 유형의 주류를 형성함. 35~39세 구간에서는 취업준비형(1,403명)의 약 7.9배에 달함

○ 한편, '비구직형'의 전 연령대를 거친 지속성과 '심신장애형'의 고정적 분포가 확인됨

- '비구직형'은 사회 진입 초기인 19~24세(4,199명)에 높게 형성된 후, 30대(만 30~34세, 4,969명, 만 35~39세 2,650명)까지 지속되는 양상임
- '심신장애형'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인구가 존재하므로 상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전북의 청년 니트(비경제활동인구) 유형별 및 연령별 규모 현황(2024)

(단위: 명, %)

구분	합계	연령대별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 35~39세
취업준비·구직형	24,158	6,834	12,956	2,965	1,403
진학준비형	1,132	825	307	-	-
돌봄·가사형	21,806	394	3,047	7,293	11,072
비구직형(쉬었음)	15,283	4,199	3,465	4,969	2,650
심신장애형	2,579	702	524	693	660
군입대 대기형	1,267	1,267	-	-	-
만19~39세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	66,225	14,221	20,299	15,920	15,785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시도 단위 자료 활용」, 만 19~39세 모집단 추정치(시도가중값 합계), 연구진 작성

주1) '-' 표시는 (1) 해당 값이 미집계/결측인 경우를 의미함

주2) 유형 분류 과정에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기타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 청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본 표의 총계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차이가 존재

(3) 전북 청년 니트 발생의 구조적 요인

- 청년 니트는 흔히 개인의 의지나 태도 문제로 환원되기 쉽지만,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정책 전달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전북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 지속과 정주 여건 악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연이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순환체계가 강화되기 쉬운 상황임. 이에 전북의 청년 니트는 개인적 요인보다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 지역의 청년 니트 발생의 구조적 요인들을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살펴봄

①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요인

○ 지역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친화적 노동수요의 약화

- 청년 니트 증가 요인으로 경기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약화로 보고 있음. 전북의 산업구조는 제조·농식품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지식기반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별 일자리 질의 격차가 크며, 정규직 전환 여건도 취약한 편임. 이로 인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고,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면서, 청년들이 ‘기다릴 만한 일자리(정규직, 경력경로가 확보된 일자리 등)’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로 진입장벽 및 ‘미스매치’ 발생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 시 초기 진입 실패를 유발하고, 실패 경험은 노동시장 진입의 중단·유예·포기로 축적되는 경로를 형성함

- 전북 청년 또한, 첫 직장이 평생 소득과 직업 경로를 결정한다고 인식하여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에서 출발할 경우 1차 노동시장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는 ‘이중구조의 덫’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 이런 인식이 강화될수록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기 보다 취업을 유예하고 ‘구직 대기 상태(니트)’를 선택함. 이에 전북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이탈 방지,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니라 미스매치(전공·역량, 직무) 교정, 재진입 경로 확보 등을 포함한 구조적 개입을 핵심과제로 다뤄야 함

○ 노동시장 환경 악화가 만드는 ‘경제활동 참여 유보’

- 청년 니트 증가는 단지 일자리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당장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참여를 유보하거나, 임금·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환경이 열악해 참여 의지를 줄어든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됨

② 교육 및 직업 훈련 체계 단절 요인

○ 교육 → 훈련 → 고용으로의 연계 취약, 진로탐색·직업교육의 공백 발생

- 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 탐색 부족과 진로 교육 공백이 니트 유입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됨
- 전북 관점에서 대학(및 직업계고) 졸업 이후 ‘사후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크고, 중등→고등→대학→직업교육·훈련→일 경험으로 이어지는 지역 기반의 경로 자체가 취약하여 니트 발생이 누적되고 있음
- 특히 직업계고와 지역 대학은 산업수요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및 현장 기반 학습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 채용 경로도 충분하지 않아 청년들의 ‘교육-훈련-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③ 심리적 요인

○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자기효능감 저하, 사회적 낙인 등도 니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니트로 전이되는 경우는 사회참여 의욕과 대인관계가 위축된 '심리적 단절' 현상을 경험하는 청년 중심으로 심화됨. 일부 청년은 반복된 구직 실패, 열악한 일자리, 가족의 기대 부담 등으로 인해 '무기력형 니트'로 전환되고 있음

④ 정책적 요인(정책 전달체계, 타겟팅, 개입 시점 등)

○ 청년 니트 대응은 정책적으로 전달체계의 설계, 타겟팅의 정확도, 개입 시점의 적절성에 따라 니트의 유입과 장기화 여부가 크게 좌우됨. 청년 니트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취업·진학 준비형, 비구직 휴식·단념형, 돌봄·가사형, 질병·장애형 등으로 구성되는 이질적 집단이기에, 단순 취업 알선 중심의 일괄 지원은 실효성이 제한적임

- 특히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비구직·휴식형은 구직 중단이 장기 실업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전이될 위험이 크기에 상태를 세분화하고 전환 초기 단계에서 조기 개입하여 전이를 차단하는 접근이 필요함

○ 그리고 청년 니트는 정책 대상의 발굴이 어렵고, 객관적 지표·통계와 지역 단위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 설계가 '사후 처방'에 머물러 있음. 이에 니트 문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규모·유형·원인·경로)이 취약하며, 고용·훈련·복지·정신건강·주거 등 관련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절되어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통합적 연계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표 5] 청년 니트 발생의 구조적 요인들

요인	주요 현상	정책적 개입 지점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요인	•노동수요 약화 및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실패 누적	•첫 일자리 질 보완, 일 경험-채용 연계, 지역기업의 정규·경력경로 설계
교육과 훈련 단절 요인	•중·고등부터 진로 탐색과 진로 교육 공백 발생, 학교와 직장 연계 약화	•중등→대학→훈련→일경험 지역 트랙(교육 사슬) 구축
심리적 요인	•우울, 고립, 관계 약화 등 동반	•심리 상담, 사회관계 회복, 구직비용 지원(패키지), 낙인 완화 지원
정책적 요인	•이질적 집단의 일괄 정책 추진과 정책 대상의 발굴 및 관련 정보 부족	•유형별(취준/돌봄/질병/휴식) 맞춤 사례관리, 휴식형 전이 차단 등



국내외 청년 니트 지원 정책 사례

(1) 국내 지원 정책 사례

○ 고용노동부, 지자체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 (사업목적) 구직 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사업
- (지원대상) 18세~39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

- (프로그램 구성) 밀착 상담 통해 개인 상황 고려 지원 제공. 상담과 사례관리와 자신감 회복·진로탐색·취업 역량 강화·외부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프로그램 기간도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이상, 200시간) 등 다양. 이외 주거, 금융,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등 생활 관리 지원
- (1단계) 구직 단념 청년 등 참여자 발굴과 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직업 훈련,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표 6]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 내용) 프로그램 이수 시 수당(단기 50만원, 중장기 최대 300만원) 및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 연계, 취업 성공 시 고용 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추가 지원 연계

○ 서울시, 실태 기반의 청년 니트 지원 정책 설계

- 청년 니트 실태분석을 통해 이행기 청년 특성 파악·조기개입을 통한 니트화 예방 필요성 강조. 또한 청년의 ‘쉬었음’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특히 ‘일의 경험’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①열심히 일을 찾는 구직자와 이직자 대상으로 교육·학습 기회, 새로운 일자리 연계, ②실업과 구직 단념 대상으로 경제적·일자리 지원, 사회성 회복 지원, ③은둔·회피형 대상으로 사회복지 지원체계와 연계한 지원 등

- 또한, 성별 비교와 니트의 세부 유형을 정의하고(실업형/가사돌봄/회피·휴식 등) 정책적으로 치유프로그램 등 회복 지원 추진

○ 니트컴퍼니(NEET company)

- 서울시와 사단법인 '니트생활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니트컴퍼니'는 백수들만 다닐 수 있는 가상회사
- 온라인 기반의 무업청년들의 근황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임
- 가상회사 컨셉으로 '사원증' 발급받고 가상의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 참여자 스스로가 '업무' 정하고 이를 인증하며 규칙적인 일상 만들. 거창한 직무역량 강화 보다 스스로 정한 소소한 일을 업무로 설정·공유함

- 통상 한 시즌당 10~12주(약 3개월) 동안 운영, 기수 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여명의 사원을 모집함. 2025년 2월 기준 19번째 시즌 사원 모집
- 해당 프로그램 참여로 약 80%가 구직활동을 시작하거나 취업 성공 등 실질적인 의욕 고취 효과를 보이며, 소통 하며 고립감을 해소하는 사회적 연결감을 형성하게 됨

[그림 8] 니트컴퍼니 홈페이지



출처 : <https://neetpeople.kr/>

(2) 국외 지원 정책 사례

○ 일본의 청년 니트 지원 전담 기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

- 후생노동성과 지방자치단체 연계로, 지역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이 위탁 운영하는 청년 니트 대상의 전문 종합지원센터임
- 15~49세 장기 미취업자 중 취업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 구직 방법을 모르거나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대상 상담, 훈련, 체험 등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 '06년 25개소로 시작하여 '22년 기준 일본 전역에 177개소 설치·운영. 1:1 상담을 시작으로 심리적 회복, 사회성 훈련, 직무 체험, 자격 취득, 직장 연계 까지 단계적 지원
- 보건소, 복지시설, 교육기관, 헬로워크(공공고용 지원기관) 등과 네트워크 연계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청년 니트 대상 통합 서비스 제공. 헬로워크가 구체적인 취업 알선을 한다면, 사포스테는 취업 준비를 위한 심리적 기반 마련과 기초능력 배양에 주력

[표 7] 일본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의 주요 역할

영역	세부 지원 내용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직업 컨설팅,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와 1:1 상담,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 수립
직업 훈련 및 체험	•협력 기업에서의 단기 직장 체험, 비즈니스 매너 교육, 취업 체험 기회 제공, 고용시장과 연결하여 취업 지원
사회 적응 지원	•커뮤니케이션 향상 훈련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취업지원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부모 지원	•니트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무업 상태로 고민하는 보호자 대상 세미나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중훈련(합숙형)	•단기간 집중적인 생활 관리와 사회성 훈련 필요한 경우 합숙 형태의 프로그램 연계

[그림 9] 일본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



출처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サポステ)' 홈페이지(<https://www.saposute-sakai.net/>)

○ 영국의 청년 니트 정책인 Youth Guarantee와 The King's Trust

- 영국은 청년 니트 문제 대응을 위해 지원 정책으로 ①「Youth Guarantee」과 ②「The King's Trust」를 추진하고 있음. 「Youth Guarantee」는 정부 주도 정책으로 특히 실직 초기(4개월 이내)의 조기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 「The King's Trust」는 국가가 닿기 어려운 민간 주도의 '사각지대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회복과 실무적 경험을 연결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 「Youth Guarantee」는 실직 및 구직상태가 장기화된 18~21세 청년 니트 대상으로 장기간 니트로 고착되기 전 일·교육·훈련 기회 부여(유급 일자리, 주 25시간, 임금 전액 보조)와 관련 동반 지원 제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Youth Hubs(원스톱 지원 시스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구직 기술, 훈련, 정신건강, 주거 상담, 진로지도 등 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음. 이 정책은 장기 미취업과 미학습 청년의 조기 전환, 지역 기반의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뿐 아니라 훈련과 교육 경로까지 포함한 경로 회복을 강화하고 있음

- 영국의 대표 청년 지원 자선기관인 「The King's Trust」(Prince's Trust → King's Trust로 명칭 변경)가 민간 주도로 니트 청년 지원 정책 추진. 니트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 빈도가 높은 대표 정책임

이 정책은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졸업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기반의 니트 위험군 예측 도구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신감, 역량 강화 및 취·창업을 지원함

[표 8] 영국의 The King's Trust 과정

구분	세부 내용
Get Started (단기 진입·동기 회복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16-30세 청년 중 재학, 재직, 훈련 중이 아닌 니트 대상 •(기능) 단기과정, 자신감 회복, 활동 경험, 다음 단계(훈련과 구직) 진입의 '첫 점점'을 만드는 과정
Get Into (직무·산업 진입형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16-30세 청년 중 특정 분야 진입을 탐색하고 준비하려는 자 •(기능) 분야별 실무역량(훈련), 취업 준비(이력서, 면접 등) 결합 '일로의 전환' 가능성 높이는 과정
Team Programme (경험·자격 취득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12주 과정 •실무기술·경험을 쌓고 자격을 취득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구조로 안내됨
Enterprise Programme (창업과 자영업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18-30세의 창업 아이디어 보유 청년 •(지원 내용) 1:1 지원, 멘토링, 사업계획·현금 지원, Test My Business Grant(최대 £500), 창업자금 패키지(보조금 최대 £5,000 + 대출 £500-£25,000), 런칭 이후 최대 3년 사후지원



전북 청년 니트 유형별 정책 접근 방안

» 청년 니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유형별 지원 방안

(1) 청년 니트 정책의 기본 방향

○ 전북형 청년 니트 정책적 접근의 출발점은 청년 니트가 형성·고착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있음

① 예방 중심적 접근

○ 청년 니트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니트 상태로 진입하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 사후 관리하는 방식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청년의 이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전북은 고등학교-대학(또는 직업훈련)-지역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가 취약하여, 졸업·중도 탈락·준비 장기화가 곧바로 비경제활동 또는 쉬었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예방은 학교·대학·훈련기관 단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진로 미결정·중도 탈락 위험·구직 지연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와 조기 연계(청년센터·고용 서비스·상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조기 개입의 관점

○ '쉬었음' 상태가 단기간의 휴식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고착화 되는 구간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할 필요 있음. 단순히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만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 단념 및 회피형 청년들의 이탈 신호를 포착해 초기 접점을 확보하고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함

- 통상 구직 단념이나 사회적 고립은 3~6개월 이상의 비경제활동이 누적되면서 강화됨. 이에 전북은 '쉬었음' 진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즉 약 3개월 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조기 개입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있음

③ 유형별 맞춤 지원 접근

- 청년 니트를 단일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태와 제약요인 및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 지어 지원 내용을 달리할 필요 있음. 일을 찾는 구직자에게는 교육·학습 기회와 일자리 연계가 중요하고, 실업·구직 단념자에게는 경제적·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회복이 필요함
- 청년 니트 유형별 맞춤 지원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아니라 유형별 장애요인을 정확히 겨냥하는 서비스 조합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음

④ 일 경험 중심 접근

-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최초 진입하거나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직무탐색→현장경험→채용으로 이어지는 경로 기반의 일 경험 체계 수립이 필요함. 단순히 '일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경력 신호를 만들고 미스매치를 줄이고 고용 유지까지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함. 즉 쉬었음이 고착되지 않도록 '일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함

⑤ 연계 및 통합적 지원·개인별 관리 방식의 접근

- 청년 니트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정신건강, 주거, 채무, 돌봄 등 매우 복합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통합 지원체계가 필수적임. 단순히 취업 성공이라는 단일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참여 지속, 심리적 회복,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같은 과정 중심의 성과를 함께 관리해야 함
- 전북 특성을 고려하여 '원스톱 등록-진단-개인별 지원계획수립-지원서비스 연계-사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전주권 중심의 거점형 지원과 군 지역의 이동형(분산형) 서비스를 결합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표 9] 청년 니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정책의 기본 방향	세부 지원 내용
예방 중심 지원	학교, 대학, 훈련 기관 단계에서 이행 위험 군 선제적 지원
조기 개입 지원	'쉬었음' 3개월 이상 진입 시점에 집중
유형별 맞춤 지원	실직 후 구직형, 구직단념형, 취업·진학 준비형, 가사 및 돌봄형, 신체·심리 건강장애형
일경험 중심 지원	단기 일거리 보다 경로 기반 일 경험(직무탐색→현장경험→체험) 지원
연계 및 통합 지원	고용, 복지, 정신건강, 주거, 채무 등 통합적 지원

(2) 청년 니트 유형별 맞춤 정책 방향

○ 청년 니트를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구직형(실직형)과 비구직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비구직형은 사유에 따라 구직 단념형(쉬었음), 취업·진학 준비형, 가사·돌봄형, 신체·심리건강 장애형 등으로 세부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청년 니트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요 특징과 정책 지원 방향은 아래 표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음

[표 10] 청년 니트 유형별 맞춤 정책 방향

구분	주요 특징	정책 지원 방향
실직 후 구직형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스매치 등에 의해 실직 후 구직 중이나 직무 역량이나 경력 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멘토링 강화, 정보연계, 일자리 매칭 •직업 훈련과 인턴십 제공
구직 단념형 (쉬었음 고착, 휴식·포기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되는 구직 실패 •노동 시작 복귀 의지 약화 •낮은 취업 자신감과 무기력 •스트레스·우울·고립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 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진행 •소그룹의 커뮤니티 활동 •성취 경험을 위한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연계 단계적 •일 경험 프로그램과 인턴십 기회 확대 •구직 촉구와 독려를 위한 단계별 수당 설계 지원
취업 및 진학 준비형 (유예 및 준비 장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과 기술 습득 중단, 취업과 진학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니트 전환 및 고착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과 개인별 학습계획 및 진로계획 지원 •직무탐색 기회 확대, 단기 일경험 중심 프로그램 지원
가사 및 돌봄형 (기혼 여성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돌봄 공백과 부담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 지원,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지원 •유연한 일자리(시간선택제 등) 매칭
신체·심리 건강 장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 심리와 관계적 장애, 의료 및 재활 등 신체적 건강 장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건강 바우처, 정신건강 클리닉 연계 상담 지원 •의료와 재활 지원, 일자리 매칭

» 전북형 청년 니트 정책의 세부 과제(안)

- 청년 니트 지원을 위한 전북형 정책의 세부 과제를 크게 세 개 축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함

① 법·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 기반 구축

- 전북형 청년 니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니트 대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예산에 대한 안정적 확보 필요. 또한, 전북 청년니트 현황 집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태 기반의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도와 시군 단위의 청년 니트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집계 정례화, 전북 청년 니트 실태조사 및 연령·성별·지역별·유형별 청년 니트 변화 추이 주기적 모니터링 등

② ‘전북 청년 니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이동형 커리어버스 운영

- 전북 청년 니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니트 청년이 어디에 거주하든, 한 곳에서 등록-진단-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서비스 연계와 더불어 사후관리(분기별 모니터링 등) 등을 연속해서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거점 센터(전주권)를 두고, 익산·군산·정읍 등 생활권 위성·협력 창구 설치, 그리고 군지역 이동형 커리어버스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이동형 커리어버스) 군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 중심으로, 고립 위험군 청년 니트 대상으로 월 2~4회 이동형 커리어버스로 순회하며 찾아가는 진로상담, 정신건강 스크리닝, 고용신청과 매칭 등의 서비스 지원

③ 전북 청년 니트 데이터 기반 조기경보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장기 쉬었음의 청년 니트 고착화를 막고, 서비스 미이용, 반복 실직·실패, 장기 비경제활동 등 핵심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동시에 취업·교육·훈련 복귀로의 전환율, 고용 유지율(3·6개월 지속 유지), 서비스 지속 참여율, 회복 지표(고립·우울 등 개선) 검토 등 과정 및 성과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참고문헌

- 김범식, 장윤희. (2020). 서울시 니트의 특성 분석 : 성별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21(1), 111~128
- 송수중. (2025). 청년니트의 구성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 2025년 봄호
- 이미숙, 진형익, 이예리. (2022).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 현황과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 산업경제연구, 35(4), 671-693.
- 이혜민, 이재요. (2024). 경기도 청년 니트의 현황과 정책적 접근 방안. 경기도일자리재단, GJF 이슈포커스
- 전영창, 이선화. (2024). 청년니트(NEET) 유형과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63(1), 329-350
- 조권중, 변금선, 이보경, 채황석, 신동훈, 정재현. (2024). 서울시 청년 니트(NEET) 실태분석과 일자리 지원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훈.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광훈 (2025). 청년패널조사로 본 청년 니트 현황 및 특징. 한국고용정보원. 계간고용이슈 2025년 봄호
- 관계부처 합동(2023).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iSSUE BRIEFING

vol.335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